

# “4·3과 치유의 이야기, 세계와 나누고 싶다”

나이도 하는 일도 달랐던 두 사람이 낯선 제주에서 마주했다. 첫 만남의 시작은 ‘무속’이라는 공통 관심사였지만, 이들을 다시 제주로 부른 것은 ‘제주4·3’이었다. 미국인이자 한국계 4세인 영화감독 그랜트현(33) 씨와 미국에서 심리상담사(치유사)로 일하는 김희선(56) 씨의 이야기다.

▶ 제주서 ‘트라우마 치유’ 고민= 먼저 제주에 왔던 건 희선 씨였다. 1997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터전을 옮겼던 그에게 일종의 계기가 찾아왔다. 트라우마 치유사로 많은 환자를 만나며 희선 씨가 느낀 것은 끝 모를 고통이었다.

자연스레 희선 씨는 또 다른 ‘치유’에 눈을 돌렸다. “서양에서의 개인 위주의 트라우마 치유 기법”에 한계가 느껴졌다. ‘치유사의 원형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찾은 행선지가 ‘삼방’이 있는 제주였다. 2019년 찾은 제주에선 4·3이라는 트라우마와도 맞닥뜨렸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간 희선 씨는 2021년 다시 제주에 왔다. 본격적으로 ‘4·3 트라우마와 무속을 통한 치유’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다. 그의 박사논문 주제이기도 했던 이 연구는 폴브라이트 장학금(미국 국무부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희선 씨는 “연구 지원서에 4·3을 얘기하면서 미군정에 대한 책임론 등을 썼던 터라 (떨어질까) 걱정했다”면서 “이 연구를 서포트해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시기가 됐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독립운동가 후손이 바라본 4·3=바로 다음 해인 2022년, 연구자 제주에 머물던 희선 씨를 찾아온 이가 있었다. 바로 그랜트 씨였다. 비



지난 21일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분향당 앞에서 만난 영화감독 그랜트현(오른쪽)씨와 심리상담사 김희선씨. 미국에 사는 두 사람은 ‘무속’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만나 ‘4·3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다시 제주를 찾았다.

## 한국계 미국인 영화감독 그랜트현·치유가 김희선씨 지난 3월말 다시 제주 찾아 ‘4·3 다큐멘터리’ 스케치 “미국인, 한국전쟁도 잘 몰라... 4·3에 책임감 가져야”

슷한 시기에, 똑같이 무속을 주제로 연구하겠다는 두 사람을 풀브라이트 재단이 연결해 준 것이다. 영화감독인 그랜트 씨는 한국 무속을 주제로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사전 연구를 계획하고 있었다.

희선 씨와 그랜트 씨는 제주에서의 첫 만남 이후에도 인연을 이어갔다. 그러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는 데에 뜻이 모였다. 처음 떠올린 주제는 한국의 무속이었지만, 4·3과 제주의 무속을 다뤄보자는 계획으로 구체화됐다. 지난해 봄쯤이었다.

마침내 지난달 29일, 두 사람은

또다시 제주에 다다랐다. 5월 말까지 제주에 머물 예정이라는 이들은 도내 곳곳을 누비며 스케치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이다.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랜트 씨에게 제주의 4·3은 어떤 ‘관계’를 느끼게 한다. 한국계 4세인 그의 가족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의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은 현순. 1919년 3·1만세운동은 물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랜트 씨는 4·3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3·1 사건(1947년 3월 1일)’을 언급하며

“(4·3은)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두 사건이 연결되면서 한(恨)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한국전쟁을 알기 위해선 4·3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 이야기를 전 세계 관객과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인, 서양인들이 영화를 보고 일종의 책임감을 갖는다면 영화가 성공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랜트 씨의 이 말은 앞으로 만들어질 다큐멘터리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4·3에 대해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대 간 트라우마 치유를 조명할 예정이다. 희선 씨는 “(미국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국가 활영을 위해 제주를 찾게 될 것 같다”며 “아마 1~2년 뒤에는 작품이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jieun@ihalla.com

## 서부서 지능범죄수사팀 범죄수익 보전 ‘전국 3위’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 2024년 1~3월 범죄수익 보전 우수 관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올해 1~3월

범죄수익 보전 평가에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전국 18개 시·도청 산하 259개 경찰서 중에서 공동 3위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수익은 범죄를 통해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몰수·추징 대상이다.

서부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수수료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취득한 사건을 비롯해 불법 도박으로 5800만원을 취득

한 사건 등 4건의 범죄에 대해 관련 계좌를 분석, 총 3억1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오임관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단속·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6일 금요일 음 3월 18일 (10물)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60%
30%	성산	60%
30%	고산	60%
3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15/22℃
모레	흐리고 비 16/24℃

###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5℃, 낮 최고기온은 19~20℃로 전망된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새벽 한때 흐리겠다.

해돋이 05:51	달뜨기 21:40
해질 19:13	달지기 06:49
물때 만조 11:33	간조 06:22
	18:08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 주말 제주 ‘맑음’... 최고기온 21~22℃

### 기상청 “미세먼지 주의”

이번 주말 제주지역은 흐리다가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를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27일부터 제주를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6일 아침최저기온은 13~14℃, 낮최고기온은 19~20℃가 되겠으며, 27일 아침최저기온은 14~15℃, 낮최고기온은 21~22℃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5~26일 동쪽 지역 중심으로 황사가 하강하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으나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해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예보는 매일 오전 5~11시, 오후 5~11시 발표된다. 김재현기자

### 탐동로 배수암거 정비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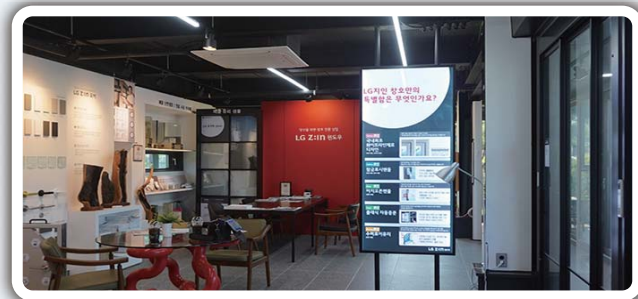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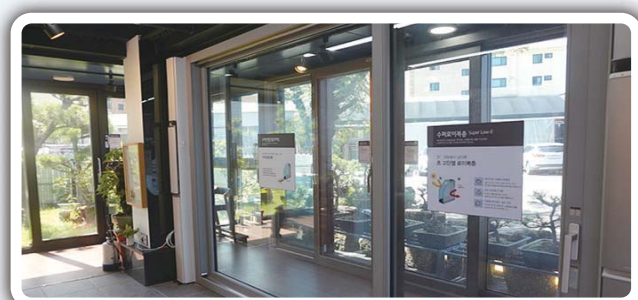
제주시는 탐동로 라마다호텔 앞 배수암거 정비사업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라마다호텔에서 오리엔탈호텔까지 296m 구간의 배수암거를 정비하는 공사로, 4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올해 공사비 10억원이 확보돼 지난 4월 17일 공사가 시작됐다.

한라일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 창호의 새로운 기준!

주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주도민의 깊은 사랑을 받은 저희 (주)한진시스템은 행복한 주거환경을 소중히 지키며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도민의 기업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 제주 2015-07-05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주)한진시스템

제주시 아연로 175(오라이동)

TEL.711-5169

LX하우시스 제주대리점

· 시스템창호 · PVC창호 · A·L·유리

